

[수기]

아버지는 나의 계몽 스승

해마다 '7.1' 당창건 기념일이 돌아 오면 나는 평생을 당을 위한 사업에 투신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며 당신의 숭선수범으로 자식들을 이끌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눈금을 적시곤 한다.

1922년에 연길시 소영의 광진촌에서 태어난 아버지 리두석은 전주 리씨 가문의 삼대독자였다. 첫 손군을 손자로 많이 기대하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가 태어난 후 조금은 섭섭해 하시다가 “녀자애든 남자애든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지…”라고 하시면서 ‘귀동녀’라고 불러주셨다. 덕분에 나는 로인들과 부모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행복한 동년을 보냈다.

내가 소학교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넓은 마당에 그네도 매주고 철봉대도 세워주고 자그마한 놀이동산도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꽃도 심어주면서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크라고 심려하셨다. 또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하려고 마루방 넓은 벽에 그라프를 붙여놓고 바닥을 닦으면 붉은 오각별을, 닦지 않으면 노란 오각별을 붙여주고 일주일 동안 붉은 오각별 개수가 많으면 연필이며 필 가장, 그림책 같은 것을 사주셨다.

광복후 왕청현 배초구제 2소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업하시던 아버지는 1947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1951년에 왕청현당학교 교장으로 전근하였으며 그후 왕청현당위 선전부장으로 지내다가 1959년에 연변주당학교 교장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따라서 왕청현 배초구에서 살던 우리는 왕청으로 이사를 갔다가 연길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고종생인 나도 연길시 2중에 다니게 되었다.

그때 우리 집에는 남동생 둘과 녀동생 넷에 나까지 자식 7명에 종중으로 운신을 제대로 못하는 할머니가 계시었는데 어머니가 할머니 간호와 자식들 뒤시중으로 사업을 접은 상태라 아버지 혼자 로임으로 10명 식구가 24평방미터 남짓한 비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았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두운 기색을 보일새라 일곱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주고 엄격하게 단속하였으며 특히 맏이인 나에게는 항상 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로동대학을 졸업한 내가 1963년에 왕청현식품공사에 배치를 받게 되자 아버지는 집을 떠나는 나에게 세가지 당부를 하셨다.

첫째로, 새로운 일터에 가면 조직의 배치에 복종하고 간부 자녀의 티를 내지 말고 겸손하며 맡겨진 사업임무를 잘 완성하거라.



빈한했던 70년대 우리 집은 재봉침 같은 것은 살 엄두도 못 냈다. 옷을 수선하거나 만들 일이 있으면 엄마는 큰 이모네 집에 가서 해왔다. 큰이모네 큰언니는 어릴 때 높은 데서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에 혹이 생겨 장애인 이 되었다. 점점 커가는 딸을 지켜보던 큰이모는 손재간이라도 배워주어 밥벌이라도 시키려고 재봉침을 샀다. 70년대에 재봉침은 사기도 어려웠고 큰 재산으로 보배처럼 여겼던 터라 애들은 다치지도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재봉침을 애지중지하면서도 큰이모는 엄마가 바느질하러 가면 재봉침을 마음대로 쓰게 했다. 한번 빌려 쓸 때마다 너무 미안하여 엄마는 집식구들의 기워야 할 옷가지들과 새로 지을 옷감을 한번에 한보파리씩 들고 갔다. 어머니는 진종일 재단하고 박고 고치고 하면서 밤중까지



둘째로, 적극적으로 당을 따라 학습하여 꼭 입당하거라. 조직상의 입당보다 사상상에서 입당을 해야 당과 인민을 위하여 더욱 잘 복무할 수 있다.

셋째로, 경상적으로 당조직에 사상 회보를 하거라. 사상회보가 너의 진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아버지의 말씀을 명기한 나는 생소한 일터에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과도 올리고 크고 작은 영예도 따내면서 입당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사상회보를 쓰되 꼭 2부를 만들어 한부는 조직에 바치고 한부는 아버지한테 편지로 부쳐보냈는데 아버지는 바쁘신 와중에도 번마다 회답을 보내와 이미 얻은 영예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일깨워주곤 했다.

1966년에 입당지원서까지 쓰고 비준을 받지 못한 나는 연길시사탕술공사에 전근한 지 7년이 되는 1983년에야 입당을 쟁취했다. 그때 입당선서를 마치고 아버지 단위에 들려 “아버지, 저 입당선서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축하한다. 그동안 아버지가 너한테 많이 미안했구나. 앞으로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잘해라…”라고 하면서 잔등을 다 독여주시었다.

연변라디오방송사업처 부처장, 연변라디오방송국 부총편집, 훈춘현당위 선전부장, 연길시 부시장 등으로

사업하다가 1978년에 연변출판사로 전근하여 당위 서기 겸 사장, 총편집을 맡고 1981년에는 연변주출판국 국장, 당조 서기 직무까지 겸임한 아버지는 그즈음 민족출판사업을 취세우기 위해 밤낮이 따로 없이 사업하였다. 특히 중앙과 성, 주 해당 부문을 문탁이 달도록 찾아다니면서 거액의 자금을 쟁취하여 민족도서 정품 생산과 출판사 사업환경 및 임직원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아버지는 1985년 리직휴양한 후에도 재직시절보다 더 바쁘게 보내시었다. 우선은 주덕해동지 기념비 건설 준비소조 성원으로 기념비 정조, 수건까지 집금 등 종대한 사업에서 한몫을 감당하였다. 기념비 제막식이 끝나자 아버지는 또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기금회 상무부회장 직무를 맡고 연변주내는 물론 북경과 동북 3성, 내몽골 등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기금을 받아들었다. 그때까지만도 아버지는 건강상태가 좋아서 주내 단거리는 젊은이들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그러던 1987년 8월 중순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기부 제보를 받으러 떠난 아버지는 연변병원 앞을 지나다가 교통사고로 특급 한대가 부러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픔을 참아가며 자전거를 밀고 그 전날에 이미 약속받은 단위에 가서 일을 끝까지 보고서야 귀로에 올랐다. 이런 놀라운

의력으로 그는 기금회 동료들과 함께 100만원도 훨씬 넘는 거액의 기금을 모아 총서의 정상적인 출판을 담보하였다.

또 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 200여만원의 자금을 쟁취하여 연변신화인쇄공장으로 하여금 성내에서도 납면제 수입제 채색인쇄기를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문도서의 인쇄질을 크게 높였으며 또 연길시신화서점 청사의 준공을 다그치도록 거액의 자금을 쟁취해오기도 하였다.

뇌혈전 후유증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연변인민출판사를 도와 북경으로 출장을 떠나셨던 아버지는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재봉에 대퇴골 골절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여러 가지 료법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효험을 보지 못하고 1993년 3월 17일 영영 우리 곁을 떠나셨다.

퇴직후에도 초심을 잊지 않고 당을 위한 사업에 여열을 다 바치신 아버지는 나의 계몽 스승이자 내 인생의 영원한 롤모델이었다. 그래서 나도 재직시절에는 상업계통에서 몸을 내빈치고 사업하여 호평을 받았고 퇴직후에는 연길시 건공가두 장산시 회구역에서 당총지 위원, 로인협회 회장, 당지부 서기 등 직무를 맡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해오고 있다. 특히 로인협회 회장을 맡은 초기에는 김현자회원과 둘이서 사비 1,000원씩 내어 수입 창출 활동을 조직했다. 공을 사다가 된장, 찹쌀, 오누이장을 만들어 팔고 찻떡, 순대, 고추가루 가공까지 하면서 활동 경비를 마련하여 대련 관광 등 다채로운 활동도 조직하고 생활이 곤난한 회원들을 도와주기도 했다.

2008년에 남상당지부 서기 직무를 맡은 이래 당원들을 이끌고 뜻깊은 학습과 사회공익 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재해구 지원, 빈곤대학생, 고아 및 빈곤당원, 중환자당원 관심 활동 등을 활발하게 조직하였으며 2024년까지 16년 동안 전후로 23명 로당원들의 마지막 길을 배례드렸다. 그런 성과로 남상당지부는 선전당지부로, 나 자신은 건공가두 우수당원, 연길시 모범가정, 연길시 신변감동인물 등으로 여러차례나 표창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났기에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32년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가 더욱더 그리워난다.

“아버지,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남은 인생도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합격된 당원으로 살아가렵니다.”

■ (연길) 리영자

[시]

■ (룡정) 양명금

자화상 (외 3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그럼으로 그려보면
내 모습이 보일까

내 동년과
내 젊음과
내 늙수그레함을
그려주었다

거기에 건강한 몸과
병든 마음까지
그려넣었다

덩치는 큰데
속은 좁은 놈
나이는 실컷 먹고도
노는 건 아직 철부지

늘 엄살이고
늘 호들갑인
한심하고 못난 녀석

나는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정말 모른다

시골 잠자리

시골길을 걷는 내 어깨에
공짜로 탑승해서 호사를 누리는
잠자리 한마리

그 많은 눈을 가지고
결국 날 선택했구나
내가 믿음직스러웠나 보다

어라! 저기
자전거를 탄 길손의 어깨에도
고추잠자리 한놈 앉았네

시골 잠자리들은
수줍어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용감하구나

어깨에 앉은 잠자리 한마리
마을까지 잘 모시고 오니
이 동네 잠자리 친구들 반갑다고
내 코앞에서 너도나도
꼬리를 달쭈꺼린다

함께 살면 닳는다더니
낯설어도 반겨 맞아주는 모양이
텅텅한 시골 인심을 닮은 것 같다

민들레

꽃이면서 꽃대접도 못 받고
풀이면서

풀 언저리에서도 밀려나
한가슴에 외로움만
가득 안고 산다

그냥 고개 숙이고
풀로 살려고 해도
나물이라고 씹둑 잘라간다

밭히고 차이며
머리에 흰서리 떠일 때까지
바람의 시달림마저 받아야 한다

장미의 고운 빛깔도 없이
카네이션의 진한 향기도 없이
서글픈 작은 꽃 한송이로 산다

한마디 원망도 없이
운명처럼 살아가는 민들레
찬찬히 보면 하늘나라 가신
내 엄마가 보인다

사랑의 후유증

—남편을 추모하여

당신은 나의
계몽 스승이었어요
사랑의 눈이 뜨이게 한

당신 안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철부지 아이가 되고
당신 안에서 내가
시나브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녀자가 되고
안해가 되고
엄마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었지요

당신은 나에게
부자가 되는 법도 가르쳐주었죠
재물 부자가 아닌 마음 부자

비린내 나는 지푸래기는
생선을 만났기 때문이고
향기가 나는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해서 그렇듯이

당신 때문에
나는 향수를 치지 않아도
향기가 난다고
사람들이 말하겠지요

당신은 떠나셨어도
속명이라 여기고
당신이 남기고 간 향기와
묵묵히 동행하겠습니다

■ (연길) 리춘자

데도 할머니는 큰 재산이라며 아들의 것이라 하였다. 사망하면서도 딸이 그렇게 욕심내던 재봉침을 떠느리한테 물려주었다. 며느리는 쓸 줄도 모르거니와 수요되지도 않는다고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수요가 있는 큰시누이에게 주라고 하였다. “나는 재산이 저 재봉침 밖에 없네. 하나 밖에 없는 귀중한 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네.” 시어머니의 유언이라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삼촌차 일군을 샅내어 시어머니가 사시는 5층 집에서 그 재봉침을 ‘모셔내와’ 반시간 거리에 있는 자기 집 6층으로 가져갔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해하더니 며칠후 세상을 떠셨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집집마다 재봉침을 샀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기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상점에 가서 마음 드는 옷들을 사다 보니 재봉침은 집집의 장식품으로 되어버렸다.

어머니 세대의 큰 재산이요, 대물림 보배였던 재봉침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희망이었고 눈물이었고 전설이었다. 맺실침을 우리를 동반하고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재봉침, 지금은 력사의 무대에서 물러났지만 우리 아버지네는 아직도 귀물로 높이 모시고 있다.

[수필]

재봉침에 깃든 이야기

고생해서야 일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다.

큰이모네 집은 서시장 부근에 있어 우리 식구들은 연길 시내로 가면 꼭꼭 들리다 보니 밥도 많이 얻어먹어 미안할 때가 많았다. 특히 엄마를 따라갈 때면 큰이모는 우리에게 점심, 저녁까지 챙겨주었다. 말린 언감자를 엮집 방아간에 가지고 가서 떡가루를 내서는 무우소에 돼지고기를 조금 넣고 만두를 만들었다. 김이 몰몰 나는 반들반들한 언감자만두를 가마에서 꺼낼 때면 군침이 돌았다. 렬치없이 배불리 먹었던 새까만 감자만두, 지금도 두고두고 잊을 수 없다.

어느 해 ‘6.1’절로 기억된다. 학교에서 집체무를 하는데 우리 치마가 너무 길어 짧게 고쳐 입고 오라고 했다. 어린 동생은 배고프다고 때를 쓰고 언니들은 언제 치마를 고쳐주나 엄마 눈치만 보았다. 큰이모 막내딸이 우리와 한학교에 다니다 보니 이 일을 자기 엄마에게 알렸다. 큰이모는 자기도 갓 퇴근하고 와서

힘들겠는데도 엄마한테 자기가 애들 치마를 고쳐줄 테니 가져오라고 했다. 무던치 큰이모가 있었기에 우리는 ‘6.1’절 집체무 활동에 이쁜 치마를 입고 갈 수 있었다. 언니는 고친 치마를 입고 빙빙 돌면서 신나게 춤까지 추었다. 이렇게 엄마가 힘들 때 큰이모는 항상 우리 집 뒤받침을 해주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활이 좀 퍼이자 엄마는 남의 집을 다니며 재봉침을 빌려 쓰는 것이 미안하여 아껴 먹으며 모은 돈으로 ‘상해표’ 재봉침을 샀다. 피땀으로 갚춘 기물이라 엄마는 누구도 다치지 못하게 하였다. 먼지가 오를까 봐 꽃천으로 씌우개까지 만들어 덮어놓았다.

어느 날 퇴근하여 집에 온 큰언니가 녀자들은 재봉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혼자서 재봉침 땃개를 열었다. 나는 엄마의 성질을 잘 알기에 엄마가 온 다음 엄마에게서 먼저 배우라고 권고하였다. 언니는 “너처럼 다 고려하다 나면 언제 배우겠니?” 하더니 자

그마한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 물린 후 앞뒤로 굴리면서 다루는 렬습을 하였다. 몸가져 흔들면서 말았다. 그런데 실이 엉키고 감기면서 바위가 돌지 않았다. 언니는 긴장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앞뒤로 당겨도 보고 밀어도 보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어쩔할 바를 몰라하더니 그대로 땃개를 뜯아버리고 모르쇠를 놓았다. 저녁에 바느질을 하려다 실이 감긴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한 엄마는 누가 다쳤는가고 물었다. 나는 더덕 겁을 먹고 숨소리로 못 냈다. 언니는 자기가 맏이로서 엄마의 부담을 덜려고 바지를 기우려 했는데 실이 감기는 바람에 못 했다고 승인하였다. 엄마는 크게 고장난 줄로 알고 “누구도 다치지 말라고 내가 몇번 말했네.” 하더니 말이 떨어지기 빠르게 언니를 때렸다. 그 정경을 보던 아버지가 “고장나면 수리하면 되지 왜 애를 짜려는가?” 하며 엄마를 밀쳐버렸다. 좀 지나자 속이 풀렸는지 엄마가 옆집 기계수리공 아저씨를 청하여 얻었던 실을 빼고 다